



사단법인 | 국제기아·질병·문맹 퇴치기구

한국제이티에스

Join Together Society <http://www.jts.or.kr>



표지사진 : 필리핀 가가후만 마을에서, JTS가 지원하고 마을사람들이 손수 지은 학교가 저 언덕너머 보인다.

JTS 통권 46호 2004년 3·4월

펴낸날 : 2004. 3. 2

펴낸이 : 유 수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김경희, 류희원,
최정연, 이미경, 김희수, 김연숙,
송하경, 안정혜

펴냄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도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인도 등게스와리 소식

- 4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
- 8 인도 선재기행 들여다보기
- 10 등게스와리에 핀 푸른 꿈

특집 · 지금 북한에선

- 12 법륜스님 라선시를 가다

아프가니스탄 소식

- 17 그들과 함께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란 지진대참사 긴급구호

- 21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다면...

필리핀 소식

- 25 가가후만 마을에 학교가 생겼어요

후원의 소리

- 27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활동보고 및 안내

- 28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북한 지원 사업
필리핀 지원사업
국내사업
- 30 신규회원(개인, 단체) 명단
- 32 물품지원
- 33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및 거리모금 현황
- 36 라진·선봉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38 편집후기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

장영주 | 인도 JTS 사무국장



인도 제이티에스에서 일하고 계신 장영주님이 잠시 국내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청했다. 10주년을 맞은 수자타아카데미 소식과 향후 제이티에스사업의 방향 그리고 개인적으로 몇 번 들렀던 수자타아카데미 사람들의 안부도 들을 겸 2월 4일 오후 1시 정토회관에서 마주 앉았다.

장영주님은 전에 회관에서 근무할 때와 모습이 별반 달라 보이지는 않았다. 조금 검게 그을린 얼굴과 다부져보이는 눈빛 그러나 얼굴에 늘 미소가 담겨있는 모습 그대로.

▶장영주님이 인도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고 현재 맡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 2년 반 되었습니다. 인도 제이티에스 사무국 업무와 마을개발파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타아카데미는 개교한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인도 제이티에스와 함께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아이들이 교육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걸하던 코흘리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자라서 이제는 건실한 청년이 되고 학교의 선생님이로 일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요?

▶그렇군요. 수자타아카데미를 졸업한 아이들이 다시 그 학교의 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자타아카데미를 비롯한 인도 제이티에스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하게 됩니까?

- 수자타아카데미는 처음에는 문맹퇴치차원에서 기초교육을 목표하였는데 이제 이 역할은 유치원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 자부심과 자긍심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도 학습 위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도 전통무용과 춤, 태권도 같은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에는 미술, 음악, 스포츠, 바느질 등의 특별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반과 공연 팀은 자체행사나 외부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등과 장엄물을 만들어서 보드가야 대탑을 참배하고, 국제사원구역 거리를 행진한 후 넓은 광장 무대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도 했는데, 이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큰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지요.

수자타 아카데미가 10년을 걸어오는 동안 다른 지역의 청년들, 한국인 실무자나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학교나 병원, 마을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자라난 이 지역의 청년들이 학교나 병원의 실무자가 되어 운영을 해나가고 마을에서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력은 현재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인도인 스텝, 청소년 노동학교 학생, 기술학교 학생, 유치원 교사 등 모두 100여명이나 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교육받은 만큼 꿈과 희망을 갖고 사회에 진출을 하려고 하지만 막상 인도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겪는 좌절감이나 배움과 현실과의 차이는 없을까요?





- 아이들이 10학년 혹은 12학년을 졸업하고 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단 한 명도 통과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규정으로는 신분계급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이티에스는 청년들을 기술력

있고 성실한 일군으로 키우기 위해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10학년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교육의 효과가 적었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9학년 10학년의 여학생에게는 재봉이나 뜨개질과 같은 기술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3년 코스의 기술학교는 현재 1년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술학교의 목표는 개인적으로는 직업을 얻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나아가 인도 제이티에스가 운영하는 학교, 마을개발의 일군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토요일 수업을 쉬고 교육 훈련의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수행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법회, 사무 실무와 교육, 경제, 건강, 문화 등 마을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이티에스 사업은 등게스와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업대상이 아닌 이웃지역에서의 요구나 이주 등의 변화는 없는지요? 또 사업지역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 등게스와리 지역에서는 주로 쌀 농사를 짓고 부업으로 돌 캐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일거리가 없어서 도시로 이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인도스텝은 만약 인도 제이티에스가 등게스와리에 없었다면 많은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수자타 아카데미가 있고, 지바카 병원이 있어서 무상 교육, 무상 치료를 해주고 또 때

때로 옷이나 생필품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우물을 파주고, 펌프를 수리해 주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동계스와리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핵환자들에게 약을 무료로 주기 때문에 위장 전입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현재 12개, 올해 15개 운영 예정)을 세우는 일은 계속 넓혀나갈 계획이고, 마을 개발 사업은 현재의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생상태의 개선, 식수원과 생활용수의 확보, 소득원의 활로를 찾는 일 등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물론 마을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지요.

▶그 많은 일들을 하려면 우리가 꾸준히 후원해야할 것들이 많죠?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물론 금전, 물품 지원 그리고 몸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영어를 잘 하고 전문 기술을 갖추고 오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간 인도사업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점, 즐거움, 보람 등이 많았을텐데요. 간단하게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 외국에 나가면 음식, 기후,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은 누구나 겪는 일이라 사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일을 하면서 여기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늘 마음속에 궁리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고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제때에 배울 수 있도록.

취재 · 정리 | 자원봉사자 고정희



인도 선재기행 들여다보기

작년 12월 28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정도회 대학생부에서는 '2004 인도 선재기행'을 다녀왔다. 54명의 청년대학생들은 마더테레사의 봉사정신이 남아있는 캘커타의 빈곤지역과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천민마을 '등게스와리'에서 국제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기도과 명상으로 하루를 열고, 낮에는 땀흘려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기도와 마음누누기로 하루를 닫고, 밤에는 부처님의 일생을 학습했다고 한다. 참가자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들어본다.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라고 알려진 캘커타의 '칼리가트'에서 환자들이 지내는 모습. 선재팀은 칼리가트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환자들의 소변을 받아주고, 식사를 먹여주는 일을 했다.



아이들을 목욕시켜주고 있는 미향이의 환한 표정. 선재팀은 주로 마을개발에 참여하였지만, 하루정도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꿰매주는 일을 했다.



열심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캘커타 일정.. 처음이라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무사히 캘커타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로 등게스와리로 출발을 했다.



일을 하러 마을에 들어가면 언제 알았는지 마을 사람들이 먼저 와서 우리들을 반겼다. 돌을 나르면서 같이 나르고 삽질을 해도 같이 하고, 그 순간 우리들은 친구였다.



도움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다.



해가질 무렵 숙소 곳곳에 초를 밝히고 있는 석범이의 모습. 동계스와리에는 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의 정진은 계속되었다. 기차 안에서 아침예불을 드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를 돌아보았다.



수자타 학생들과 함께한 인도음식 만들기. 푸리 만들고, 짜이 끓이고 등등 이런 행사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3~10세의 장애 아동들이 머무르는 '다야단'에서의 봉사활동 모습. 빨래와 청소, 아이들 씻기고 용변 보는 것을 도와주는 일 등 어찌보면 사소하지만 삶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일들을 주로 했다. 사진속의 아이가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우리들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보면 어떨지? (참고로 아이는 기분 좋게 웃고 있다^^)



불가촉천민들이 사는 마을 만코시힐의 아이들. 동계스와리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인 만코시힐의 아이들이 가장 밝고 명랑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 만코시힐에서의 즐거운 추억들이 많이 떠오른다.

등게스와리에 핀 푸른 꿈

- 제 2차 청소년 워크캠프 -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21명의 청소년과 인솔자등 총 24명이 수자타 아카데미와 캘커타의 죽음을 기다리는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15일간의 워크캠프를 다녀왔다.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안투비가 유치원 건물 외벽에 페인트로 그림그리기, 자그디스푸르 마을의 유치원 건물 기초공사를 위한 땅파기 작업, 두르가푸르에 사위장 만들기, 마을 아이들을 치료하고 목욕시켜주는 일과 예체능교육을 했고, 인도 학생들과의 문화행사와 친선 축구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했다. 특히 수자타 리더 학생들과의 공동작업과 친구집 방문하기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인도 문화와 인도 사람들과 가까와 질 수 있어서 봉사활동의 즐거움과 보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캠프였다고 한다. 참가한 청소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수자타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 삼부, 산토스, 샷시 등... 많은 인도 친구들과 같이 축구도 하고 요리도 만들고 인도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유치원 그림 그리기, 땅파기, 벽돌쌓기 등 모든 게 보람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마을을 방문해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일이었다. 불쌍하면서도 열 받았다. 애들 잘못도 아닌 것을 난 애들 탓을 했다. 왜 이런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그런 고통을 받느냐고 말이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난 울어버렸다.

-김태우

어떻게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항상 웃음을 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인도 애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했다.

-최가온

'내가 다짐한 결심을 지키지 못한 건 TV나 컴퓨터 때문이야. 인도엔 그런 게 없으니까 잘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인도에 와서 시간이 갈수록 일하기 귀찮아하는 내 모습을 깨닫고, 결국은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걸 알았다.

-김지영

나는 이제 고3으로 대입준비를 해야하는데 겨울방학에 절반이 되는 18일이라는 시간을 써야하는 이 캠프가 처음엔 부담스러웠다.

마을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손을 흔들었고, “나마스떼” 라는 인사를 어딜 가거나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입에 맞지 않던 인도 음식도 한 그릇 가득 비울 정도로 맛이 있어졌다. 나의 꿈은 치료사다. 치료사가 의사일지 약사일지 상담치료사 일지 모르지만 말로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병과 상처를 가지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내가 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얻었다.

이곳에서의 18일은 공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 심현정

아는 건 그냥 아는 것 일뿐 아는 것만으로는 이해 할 수 없다.

수자타 아카데미의 학생들과 동계스와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다. 복잡한 세상을 몰라서 순진함만을 알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상황에서 행복함을 찾고 늘려가고 나누는 것 같다. 아침마다 정신없이 학교갈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피곤해하면서 마냥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는 내 자신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이 된다. 한국에 돌아가서 내 생활, 내 삶,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함을 찾아봐야겠다. -민병완

이 곳에서의 봉사가 진정으로 필요한 봉사를 한 것일까, 혹시 내가 더 피해를 끼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의 인도에서의 생활은 내가 배우는 것이었다고 느낀다. 어떤 때보다 자연스러운 내 모습에 행복이라는 것을 느껴본 것 같다. - 강경리

오기 전과는 달라져 있을 나를 생각하며, 좀 더 자신에 찬 내 모습을 그리며, 이곳에서 또 하나의 소중한 빛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한국에서 밥을 먹다가도,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도,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도 많이 죄스러워 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많이 생각날 것이다. -유혜민



법륜스님 라선시를 가다

방문 개요

▶ 기간 : 2004. 2. 02(월) ~ 07(토)

※ 방북예정기간 : 2004. 02. 02(월) ~ 09(월)

▶ 경로 : 서울 → 심양 → 연길 → 라선 / 라선 → 연길 → 서울

▶ 방문자 : 법륜스님(이사장), 박지나(해외사업본부장)

▶ 주요 접촉기관 및 인사

- 영양식공장 공장장
- 평양에서 온 내각 참사 및 영접처 직원
- 선봉지역 농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선봉 트랙토르 수리공장 지배인
- 라선 대외무역국장 · 영접처장

▶ 주요방문지

- JTS 영양식공장 및 물고기 공장 내 아가페(Agape)공장 · 술공장 · 빵공장 · 깨공장 등
- 두만강유역 농지개발사업장(부포리 · 굴포리)
- JTS 비닐피복 재배한 곳 및 논 개간사업장
- 라선시 트랙토르(트렉터) 수리공장
- 라선시장 · 부두 · 비파섬
- 천주교에서 짓고 있는 병원 · 한민족복지재단에서 지은 제약공장 · 두레에서 지은 유치원



▶ 주요 일정 및 활동내역

1. 첫째 날(2. 2, 월) 서울 → 심양

- 서울 → 심양 (09 : 30 ~ 10 : 00)
- 심양영사관에서 북한 청진 방문 비자 받음
- ※ 방문허가 일정 : 원정리 → 라선 → 청진 → 삼지연 → 삼장
- ※ 일정상 라선·청진만 방문하기로 함
- 심양 → 연길 (17 : 30 ~ 20 : 30)

2. 둘째 날(2. 3, 화) 연길 → 원정 → 라선

- 원래 아침 8 : 00시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평양에서 영접하는 영접 직원이 도착하지 않아서 출발시간이 지연되어 연길에서 기다림.
- 오후 2시에 평양에서 연락이 와서 출발함.
- 오후 2시 30분 출발 오후 4시 30분에 해관에 도착하여 수속 밟고 건너갔는데 북한 해관문 닫음. 해관에는 난방장치가 전혀 없었음.
- 캄캄한 가운데 사람들이 새로 사무실에 나와서 수속한 후 차를 기다림
- 밤 11시에 라선시 대외무역사업국장이 급히 마중 나옴.
- 새벽 1시에 라선시에 도착하여 남산호텔에 묵음.
- 요즘 국가전기가 정전되어 호텔은 자가발전으로 불을 밝힘.
- ※ 너무 추워서 지원하려고 가지고 간 내복을 꺼내 입음.
- ※ 나중에 복무원이 전기·담요 가져다 줌.



3. 셋째 날(2. 4, 수) 라선시

- 영접을 할 평양에서 오는 분들이 오전 8시에 도착함. 16시간이 걸렸다고 함.
- 평양에서 온 영접처 직원들이 나선시와 협의해야하므로 오후부터 일정을 잡기로 함.
- 오후 3시 : JTS 영양식공장 방문
 - JTS 공장 방문뿐 아니라 아가페공장 · 술공장 · 빵공장 · 깨공장 등 물고기 공장안에 있는 전체 공장을 둘러 봄. 공장장이 안내함.
 - 저녁 7시 : 평양 내각에서 왔다는 나이 많은 참사라는 분을 저녁식사하며 영접함.

4. 넷째 날(2. 5, 목) 라선시

- 오전 8시 부포리와 굴포리 방문
 - 대보름 휴일이지만 일정이 바쁜 관계로 두만강유역 농지개발사업장인 부포리와 굴포리 방문.
 - 피복 한 곳 및 논 개간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선봉지역 농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장안내.
 - 습지 가운데 있는 광활한 지역임(1,000정보).
 - 기름이 없어 작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름 지원 요청
 - 비닐피복의 성과와 문제점 등 농업에 대한 토론
- 오전 10시 농기계 수리공장 방문
 - 공장경내를 하나하나 보면서 질문하고 토론함.
 - 부품을 생산하는 강관이 없어서 부품생산이 안되고 부품이 없으니 수리를 못한다고 함.
 - 기계는 낡았지만 깨끗이 닦아져 있었음.
 - 라선시 전체 트랙도르는 350대.
이 공장 수리능력은 120대. 주로 엔진 수리를 많이 한다고 함.
- 오후 2시 점심 식사 후 시내 구경
 - 정월 대보름이라서 점심식사 후 아이들이 전부 공원에 나와 줄넘기 ·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를 하고 있었음.



-천주교에서 짓고 있다는 병원(아직 미개원)·한민족복지재단에서 지은 제약공장(창고로 쓰고 있음)·두레에서 지은 유치원 방문.

-휴일이라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밖에서 봄.

-장마당에 갔더니 휴일이라 시장은 문을 닫고 앞에 난전이 생겨서 매우 혼잡함.

-갓가지 물건이 난전에 나왔음. 몇몇 꽃제비 아이들이 돈달라고 따라다님. 사탕을 사줌.



• 오후 4시 비파섬 방문

-홍콩기업이 투자한 곳이며 오락장(카지노)이 있는 호텔. 손님은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라고 함.

-사용 화폐는 모두 중국 인민폐나 달러라고 함.

• 저녁 나선 대외무역국장과의 대담.

-향후사업에 대한 대화 나눔.(위원장이 평양에 출장가고 없어서 앞으로 의논해서 답하기로 함)

• 내각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를 청진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왔는데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혔고, 23만KW 대형 송신탑이 고장 나서 전기가 완전 끊어져 도저히 손님을 맞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함.

※그래서 우리는 청진에 가지 못하면 내일 아침 일찍 출국하겠다고 요청해서 합의됨.

5. 다섯째 날(2. 6, 금) 라선 → 원정 → 훈춘 → 연길

- 아침 일찍 항구를 둘러보고 다시 라선시장을 한번 보고 원정교두로 옴.
- 오전 수속을 밟으려면 12시 전에 원정교두에 도착.
- 원정해관에 맡긴 물건을 찾아 수속을 밟고 중국으로 출국 (원정 → 훈춘 → 연길)
- 연길 라선대표부 사무실에서 라선 방문 소감 나눔.

6. 여섯째 날(2. 7, 토) 연길 → 서울

JTS 대북지원 계획

라선시 지원계획(라선시 당국과 협의 중)

1. 기존사업

- 영양식 가공공장 : 100여 개의 탁아·유치원 어린이 10,000여 명에게 영양식 지원
- 농업지원 : 옥수수 100정보(피복재배) · 쌀 200정보 · 콩 100정보

2. 신규사업

- 탁아유치원 100여개 시설 개선 및 의복과 이불 지원
⇒ JTS 중국 실무자가 탁아·유치원을 방문 조사 검토 후 지원
- 탁아유치원 50개 진료소 시설 개선 및 의료기기와 의약품 지원
⇒ JTS 중국 실무자가 탁아·유치원을 방문 조사 검토 후 지원
- 의류재생가공공장 운영
※ 공장설비(미싱·세탁기 등)
- 어린이 구충제와 영양제 지원 : 각각 50만정
- 농기계수리공장 부품생산지원
- 두만강유역(굴포리·부포리) 농지 개간 사업 600정보
- 영양식 가공공장 시설교체 및 개선

함경북도 청진 지원계획(청진시 당국과 협의 중)

- 청진 고아원 시설 개선 및 식량 및 의복 지원
- 경성농장 100정보(피복재배)
- 긴급 식량지원

그들과 함께하는 삶 살겠습니다

유정길 | 아프가니스탄 JTS 카불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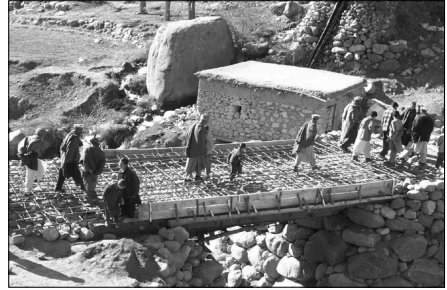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23년 동안의 전쟁과 끊임없는 내전으로 굉장히 많이 파괴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칸다하르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의 제일 남쪽에 텔레반이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유엔기구의 세계의 NGO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잘 안가는 지역으로 지금도 테러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1인당 GNP가 160달러로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 중 5위 안에 들어갑니다. 23년간의 전쟁 때문에 공장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칸다하르는 텔레반이 집권한 4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식수를 찾는 자국내 난민(IDP)들이 이동을 해와 10만명이 넘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칸다하르는 유엔기구에서도 접근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고립된 지역일수록 도움이 더 절실하리라는 생각에 더 안쪽에 있는 난민캠프까지 오가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얼마전에도 NGO 차량에 대한 테러가 있었을 만큼 위험한 지역입니다.

카불이나 칸다하르는 주변에 광활한 들판이 있습니다. 거의 광활한 평지에 산이 솟아있고 가운데 도로가 있고 옆에 평평한 길이 많은데도 다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뢰가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뢰를 만져서 다치기도 하고 불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곳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마흔넷입니다. 전쟁 때문에 죽고, 병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영양실조에다가 의 료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아프간에 학교, 병원, 다리 공사지원 등 30여 곳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는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대고 노동력은 그곳 사람들이 제공하도록 하는 원칙아래, 이를 승낙한 마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이티에스는 단순히 학교만 지어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협동심과 자립심을 키우고, 스스로 만들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사카르다라 마을의 경우는 저희의 지원 원칙을 잘 받아들였지만 탑다라 마을은 처음엔 동의했다가 나중에 임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어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물품을 지원해주셔서 총 7개의 콘테이너를 받았습니다. 그중 3개는 칸다하르에, 4개는 카불에 보냈습니다. 물품을 분류하는 등의 일은 동네의 가난한 과부 아줌마를 고용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적당히 일감을 주면서 돈을 주는 것이지요. 물품을 분배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1,600여 가구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지 나이가 얼마인지,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일일이 조사하여 쿠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분배를 하겠다고 알려주고 쿠폰이 없는 사람에게는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배가 제대로 안될 뿐만 아니라 폭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카불에 가면 거의 8살에서 10살짜리 아이들이 기름 투성이의 옷을 입고 정비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정비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히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가게마다 8~9살 아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아이들은 자기들이 모두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아이들에게는 책과 가방, 문구류 등을 지원했습니다. 문구류는 파키스탄의 공장에 주문을 했는데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가장 질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품질을 날날이 확인하며 제작했습니다. 파키스

탄이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질을 점검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동안 여자학교가 없었고 가난할수록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들 스스로가 왜 학교에 가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에 잘 나오라는 의미에서 교복을 지원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으면 학생이라는 의식이 강해지잖아요. 이 교복은 카불에 있는 과부들에게 약 1000벌을 주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과부들을 돕고, 교복을 만들고, 학교를 지원하는 삼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입을 만한 책이 없기 때문에 카불을 모두 뒤져서 200권 정도의 책을 찾아 20개 정도의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아이들에게 신발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장갑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옷이며 신발도 제대로 없어 거의 맨발로 다니니 발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발 사이즈를 일일이 재서 신발을 만들어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프카니스탄에 1년 5개월 정도 있으면서 처음엔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나만 보면 구걸을 하고 똥기를 달라고 하니깐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비가 있는데 7개월 정도 지나야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 잘못된 편견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곳 사람들이 훨씬 더 규범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는데 발도 씻고, 앞 물, 뒷 물 다하고, 머리도 빗고 손도 다 씻도록 되어 있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하니 전통을 그대로 잘 이어가



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손님 접대도 중요한 문화입니다. 손님 접대는 굉장히 깎듯합니다. 손님 방이 따로 있고 아주 친절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술도 못 먹고, 도박도 하지 않으니 그런면에서 우리보다 건전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하는데 8시부터 하기로 했으면 7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고 했더니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먹고 따로 할 일이 없어서 일찍 나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참 착하고 순박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들과 두텁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관관계를 뼈저리게 느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설령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잊지 말고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도 이곳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든 멀리 떨어져 있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시오. 여러분의 삶을 낭비적으로 함부로 살지 마시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또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정길님은 JTS 실무자로 200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카불지역 지원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2월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가진 보고회의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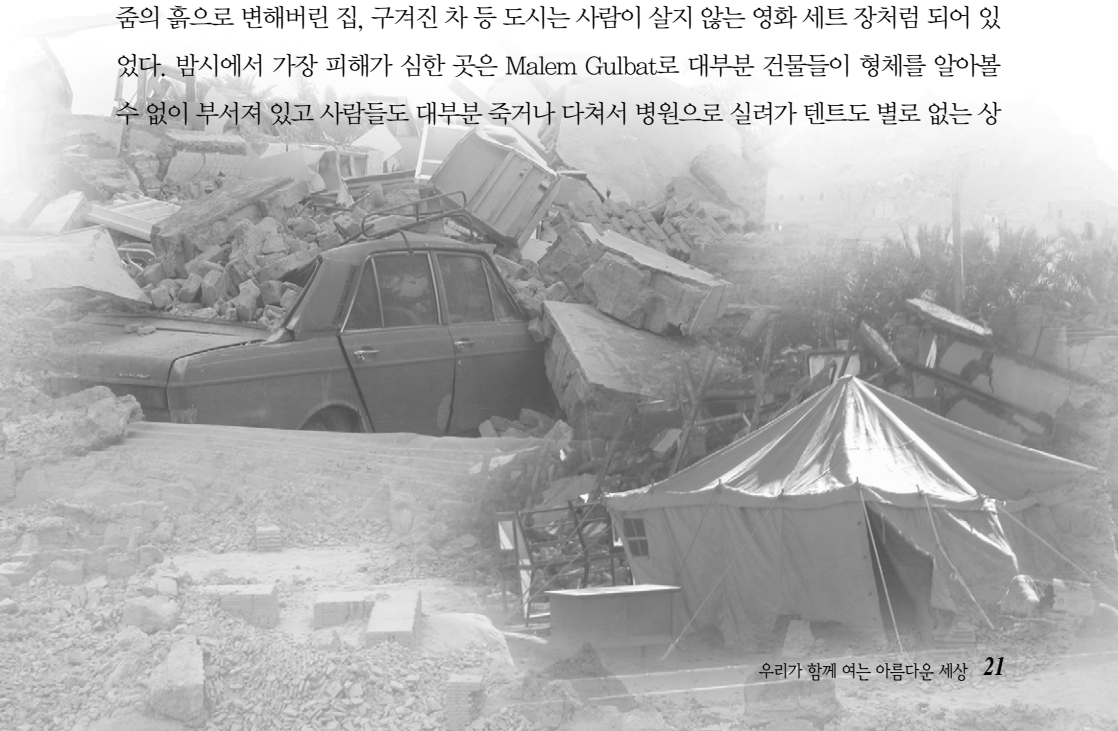
한김지영 | 아프카니스탄 JTS 자원활동가

당시 이란의 밤시 상황

2003년 12월 26일 새벽 이란 밤시는 6.7 리히터의 강진으로 인해 2만여명이 사망하고 3만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큰 재난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2,000여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고, 75,000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텐트에서 살게 되었다.

이란은 아프카니스탄과 가깝기 때문에 나와 제이티에스 이덕아님이 12월 30일 아프카니스탄에서 100kg 정도의 아동옷, 양말, 이불 등의 수하물을 가지고 이란 밤시로 파견되었다.

처음에는 엄청난 숫자에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밤시에 진입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도로 변에는 적신월사(이슬람 국가는 십자가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적십자 대신 적신월사라고 하고 달 문양을 사용함)의 텐트들이 늘어서 있고, 철근 구조밖에 안남은 건물, 한 층의 흩으로 변해버린 집, 구겨진 차 등 도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영화 세트 장처럼 되어 있었다. 밤시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은 Malem Gulbat로 대부분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부서져 있고 사람들도 대부분 죽거나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가 텐트도 별로 없는 상



황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밤시를 떠난 것 같고 아직도 떠나는 중이었다. 그나마 남아있는 이재민들은 무너진 집앞에서 적신월사에서 나눠준 텐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구호물품은 대충 다 분배된 상태였다.

제이티에스의 현지활동

1) 현지조사활동

이란정부와 UN 측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았으나 너무나 혼잡한 상황이라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수 있을지 난감했다. UNDP가 들어오는 1월 중순에나 지원에 체계가 잡힐 것 같았다.

우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인터뷰를 하고 현지상황을 조사하는데 1주일의 시간을 보냈다. 대부분 7명 이상의 가족을 잃었고 그 슬픔과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다는 충격과 실의에 빠져있었다.

2) 구호 물품 분배



대체로 구호품은 충분하지만 트럭이나 컨테이너가 구역마다 다니면서 그냥 분배를 하기 때문에 혼자 남겨진 할머니 등 노약자들은 구호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져온 담요, 어린이 옷, 양말, 조끼 등의 물품들을 밤시의 외각에 분배했고 분배하기 전에 텐트마다 우리가 분배할 예정이니 오라고 알렸다. 옷을 분배할 때 많이 혼잡스러웠지만 Mansr와 그의 친구들이 도와주어 질서 정연하게 분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알게된 이란인 살람씨에게 보시받은 돈을 가족들이 다 죽고 혼자된 할머니와 과부, 고아들에게 각 10,000투만씩(약13불)을 지원하였다.

3) Tehonar 병원과 Homeless House 방문

밤에서 온 환자를 돌보고 있는 Tehonar 병원의 경우 현재 케르만에는 밤 지진관련 부상자 523명을 3개의 병원에서 돌보고 있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 305명이 죽었다고 한다. 병원은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었고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부상이 경미한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Homeless House는 완공되지 않은 기술학교 건물에 196명(33 가족, 46 아동)이 수용되어 있었고 의대에서 의사와 의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었다.

4) 학교 지원 및 교육부 방문



현재 밤시에는 20여개의 학교가 문을 열었고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은 2,000여명 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어서 단지 아이들이 놀러올 뿐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이야기해 본 결과 현재 학교 트레일러가 1,000개 정도 더 필요

하다고 한다. 시장조사를 해보니 트레일러 한 개에 \$4,000정도 든다고 한다. 이란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인도에 비해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은 알지만 수준이 높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기는 힘들었다. 우리는 1차적으로 20개의 학교에 각각 캐비닛과 도서 280권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여개의 학교 중에서도 도시 외곽의 학교들과 초등학교를 선택하여 400명의 아이들에게 놀이기구, 문구류, 가방을 분배하였다.

중간에 함께 일하던 이덕아님이 총회 참석으로 서울로 가시게 되어 혼자남아 뒷마무리를 하게되었다. 분배를 하기 전에 도서주문, 도서와 노트에 도장찍기, 400여개의 가방에 각 문구류 넣기 등 혼자서 하기에는 작업량이 많았지만 여행객인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과 현지 통역자에게 우리의 활동과 밤 상황을 설명하니 함께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여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의 아이들 생각이 났다. 그들은 영양결핍으로 결핵 등 각종질병 등으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이곳 또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초기부터 영양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영양제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여 시장조사도 하였다.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학교에 영양식과 신발을 지원하는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발은 아이들이마다 치수가 달라서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NGO가 없다. 우리가 지원하면 아이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다.

아픔을 함께한 시간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텐트 바닥에 깔아놓은 이불들이 비에 젖기도 하고, 자주 굶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때보다도 행복했었다.

지진으로 피해를 본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구구절절한 사연과 눈물, 말이 안 통해서 무엇인가 호소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재산을 잃고 집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절망에 쌓여 있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부모, 부모를 잃은 고아, 가족을 잃어 과부가 되어 버린 여인, 혼자 남게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많은 사람들이 구호와 재건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 아픔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번에 한국에 돌아오는 길에 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 강도를 당하는 바람에 제이티에스 서류와 2년동안 쓴 일기 등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날 충격으로 실신까지 했지만 이란의 밤사에서 지진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며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전쟁이나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에 비하면 내 일은 얼마나 사소한 것인가 하고...

편집자주 : 총회 차 서울에 오신 아프간 JTS 책임자 이덕아님께 그간의 활동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동안 제3세계 구호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와 여성은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이란 긴급구호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들은 인종, 종교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배울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실 이덕아님의 목소리가 아름답습니다.

가가후만 마을에 학교가 생겼어요

김경희 | JTS 해외지원사업부 부장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사장님이신 법륜스님의 3명과 필리핀 정토회의 이원주, 황중 일씨가 동행하여 한국제이티에스에서 지원하는 필리핀 민다나오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한국제이티에스에서는 2003년 6월부터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11개 마을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그 중 6개 마을에 학교 건축을 지원하고 있다. 필리핀에 대한 지원은 법륜스님께서 막사 이사이상을 수상한 이후 필리핀의 토니주교님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카톨릭이 국교인 필리핀은 소수종교인 무슬림과 민다나오 지역에서 심한 갈등과 분쟁상황을 겪고 있으며, 외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이번 방문은 지난번에 확정된 학교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우리가 평화 프로젝트로 진행하고자 하는 무슬림 지역 답사를 위한 것이었다.

6개 마을중 가가후만 마을의 학교는 거의 완성이 되어서 준공식을 가졌다. 산언덕에 위치한 가가후만 마을은 차가 올라가지 못하여 2시간 정도를 걸어 올라가서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가가후만의 학교는 제이티에스에서 기자재를 지원하고 마을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서 만들었고, 또 시멘트 등 일부 건축자재는 마을사람들이 2시간 이상되는 거리를 모두 날라서 지었다.

마을사람들은 이 학교가 지어짐으로써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꿈을 실현하였다고 기뻐하였다. 단지 학교가 생겼다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희

망을 가지게 되었고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사업의 중요성과 자부심을 느꼈다. 제이티에스는 단지 배우기만 하는 학교가 아니라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를 지원하였던 것이다. 법륜스님께서는 인사말을 통해 마을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잘 살려나아가야 하며 학교를 통해서 마을일에 힘을 합해서 해 나가도록 격려하였다.

그리고 학교 건축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한국에서 후원받은 조끼, 모자, 옷 등을 선물하였고, 학생들에게는 문구 등을 지원하였다. 어린아이들에게 필리핀 정토회에서 직접 후원받은 어린이옷을 선물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마을총장인 다투씨는 감사의 마음을 바구니에 담을수 있다면 가득 담아서 드리고 싶고, 학교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줘서 다음에도 마을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계속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행사가 끝나고 산을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제이티에스의 지원사업에 대한 원칙과 또 많은 사람들의 정성을 가슴에 새기며 가슴뵈듯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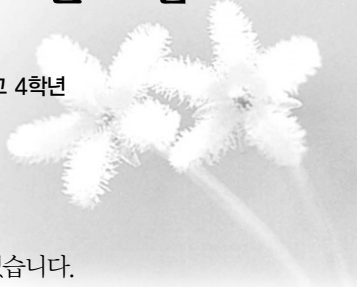
그 외 다른 지역들도 처음 계획대로 학교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

새로 답사한 무슬림 지역도 앞으로 계속해서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와 학교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돌아왔다. 필리핀 정토회의 이원주님은 필리핀 민디나오 지역의 JTS 사업을 책임지고 계시며 황종일씨는 이번 방문에서 통역을 해주셨다. 두분께 이 글을 통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조은정 | 자원봉사자, 동국대학교 4학년



어제는 겨울학기동안의 자원봉사활동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필리핀으로 가는 짐을 싸는 일이었습니다. 박스 속에 담겨진 옷을 꺼내어 곱게 개고, 몸이 들어갈 만한 커다란 가방을 열심히 닦고 개어진 옷과 노트, 필통을 챙겨 넣었습니다. 네 개의 짐가방 무게의 합이 100Kg이 넘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무게를 맞추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짐들을 현관에 내놓고 후원 들어온 속옷과 치약, 칫솔, 비누 등의 갯수를 파악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갯수가 파악된 상자들을 현관으로 가져가느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제이티에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가장 많이 움직인 날이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몸은 많이 피곤했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제이티에스는 국제 기아, 문맹, 질병퇴치 기구인데 언젠가는 꼭 이런 곳에서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다음 주부터 홍보 부서에서 일을 하며 소식지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릴 사진 고르기와 분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저금통의 액수를 세는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세어진 액수를 재검토하는 일이었는데 정확히 해야 하는 작업이라 생각보다 힘이 들었지만, 후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란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불어 무심히 지나쳤던 생활습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관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화장실에도 휴지대신 뒷물을 쓰고, 음식쓰레기도 거의 나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쓸만한 것도 쉽게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싫증을 내 계속 새 것을 찾는 습관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나 자신 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 수자타아카데미에 신입생 입학

2004년 신입생으로 128명이 입학하여 총학생 수가 408명이 된 수자타 아카데미는 더욱 활기차졌다. 아이들이 늘어나 식당과 교실이 부족하여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수자타 3층에 교실 8칸을 증축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상급생 교복이 작년까지는 푸른색이었으나 작년 10월 한국에서 보내준 흰천으로 새교복을 만들어 지급했다.

제 3기 청소년 노동학교에는 20명이 응시하여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보였고, 오는 3월 10일 입학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 교육훈련프로그램 시작

2004년도부터 인도인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가기 위한 방법으로 스텝, 교사, 청소년노동학교 학생, 기술학교 학생, 수자타아카데미 상급생, 마을유치원교사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2월부터 매주 토요일 실시하고 있다.

● 자원봉사자 네명 회향

두번째 자원활동을 온 양성숙님은 수자타 아카데미에 보건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일을 했고, 코피온으로 온 정가영님은 학교 보건실과 병원 결핵파트에서 매일 환자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하는 일을, 박혜란님은 학교에서 영어와 상급생 미술선생님으로, 배연수님은 공사파트에서 일하며, 물건 사는일과 기술학교 컴퓨터 선생님으로 일하며 5개월간의 활

동을 마치고 1월, 2월에 한국으로 돌아갔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북한 지원 사업

● 법륜스님 라선시 방문

JTS 이사장이신 법륜(法輪)스님과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님이 지난 2. 3(화)~6(금)까지 3박 4일 동안, 북한의 초청으로 라선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다. 기존의 사업인 탁아·유치원 영양식 지원과 농업지원 등을 점검하고, 50여개 진료소의 시설 개선 및 의료기기와 의약품지원 등의 사업을 검토했다.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류재생가공공장 운영 사업 등도 라선시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 라선지역 영양식 물품지원

지난 2월 2일 라선시 탁아·유치원 어린이들의 영양식 재료로 쓰이는 설탕 20톤, 분유 13톤을 부산항에서 라진, 선봉으로 선적했다. 함경북도 청진의 어린이들에게 지원되는 쌀 100톤을 중국에서 구입하여 2월 6일 회령을 거쳐서 청진에 도착하였다.

필리핀 지원사업

● 민나다오지역 방문 및 KOICA에서 필리핀사업에 4200만원 지원 받아

2월 8 ~ 13일까지 법륜스님과 이지현 JTS사무국장님등 JTS관계자 네명이 필리핀에서 진행중인 JTS 교육사업장을 방문했다. 현재 JTS



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 11개 마을에서 교육과 장애우 지원, 마을개발사업을 진행중이며 방문 중 가까후만지역의 학교 준공식이 원주민 전통 의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JTS는 2004년도 필리핀사업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42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국내소식

● 해외활동가 귀국!



아프가니스탄 JTS책임자 이덕아님과 유정길님이 17일에, 인도 JTS 책임자인 장영주님이 22일 귀국했다. 세분은 한달 가량 국내에 머물면서 전국 정토법당에서 활동보고회를 갖고 3월 초 출국한다. 이란 긴급구호 현장에서 바로 귀국한 이덕아님, 그리고 20여킬로 감량으로 훌쩍해져서 돌아온 유정길님의 모습에서

현장에서의 활동이 만만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밝은 웃음을 머금고 현장의 활동을 소식을 들려주었다.

● 재일코리안 청년연합 방문

지난 1월 12일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온 일본의 재일코리안 청년연합(KEY) 공동대표 송승재님과 동경 KEY의 회원인 이귀희님이 JTS 사무실을 찾아 라선시 유치원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YOUTH FORUM JAPAN 팀이 모은 많은 액수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북한 지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한 일본에서 성금을 내 주신 재일교포 청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다. 재일코리안 청년연합은 라선시에 있는 여러 유치원을 꾸준히 도와주고 있다.

● 신슈렌청년회 17명 방문



2월 10일 오전, 일본 종교인들의 모임인 신슈렌청년회에서 제이티에스를 방문하고 활동에 대한 소개를 들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북한 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작년에도 방문했던 구보파씨와 이와부치씨는 북한돕기 저금통에 일본동전을 가득 모아왔고, 다음에 또 모아 온다며 저금통 40여개를 가지고 갔다.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3. 12. 17 - 2004. 2. 15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북한 어린이 결연

이충현 211-11840-11
 김정숙 211-11841-11
 선이석 211-11842-11
 정준재 박경아 211-11843-11
 참여연대 211-11844-11
 임정원 211-11845-11
 김창우 211-11846-11
 최현정 211-11847-11
 김동원 211-11848-11
 김공식 211-11849-11
 잉종철 211-11850-11
 박문규 211-11851-11
 모다고레아 211-11853-11
 사공창한 211-11854-11
 백정자 211-11856-11
 홍경표 211-11857-11
 권영숙 211-11858-11
 권용희 211-11859-11
 김정혜 211-11860-11
 이현숙 211-11861-11
 박혜윤 211-11862-11
 김부호 211-11863-11
 지보사 211- 11864-11
 신자은 211-11865-11
 임연옥 211-11866-11
 이형동 211-11867-11
 정재분 211-11868-11

최정봉 211-11869-11
 전덕상 211-11870-11
 송동열 211-11871-11

인도 어린이 결연

박용훈 111-03268-14
 신성애 111-03269-14
 이기세 111-03270-14
 백화자 111-03271-14
 김익태 111-03272-14
 임진아 111-03273-14
 이미순 111-03274-14
 김승진 111-03275-14
 조호진 111-03276-14
 황정아 111-03277-14
 정화준 111-03278-14
 이혜영 111-03279-14
 최희범 111-03280-14
 김기수 111-03281-14
 최용기, 최원희 111-03282-14
 최동원 111-03283-14
 장경희 111-03284-14
 박명순 111-03285-14
 김오순 111-03286-14
 서은연 111-03287-14
 문희경 111-03288-14
 이영규 111-03289-14
 서옥련 111-03290-14

청안사 111-03291-14
 박범숙 111-03292-14
 임태경 111-03293-14
 강민욱 111-03294-14
 일현스님 111-03295-14
 김태분 111-03296-14
 박승우 111-03297-14
 정영한 111-03298-14
 송혜영 111-03299-14
 안혜원 111-03300-14
 김영상 111-03301-14
 최옥란 111-03302-14
 박주용 111-03303-14
 차래동 111-03304-14
 박광숙 111-03305-14
 김미정 111-03306-14
 신순경 111-03307-14
 박수경 111-03308-14
 박경희 111-03309-14
 오윤정 111-03310-14
 최명임 111-03311-14
 정명덕 111-03312-14
 이윤미 111-03313-14
 강정수 111-03314-14
 변임식 111-03315-14
 차상련 111-03316-14
 신영단 111-03317-14
 손미옥 111-03318-14
 윤인순 111-03319-14

윤성희 111-03320-14
 김민욱 111-03321-14
 최영희 111-03322-14
 공선주 111-03323-14
 황은진 111-03324-14
 재명삼유 111-03325-14
 이종식 111-03326-14
 정도길 111-03327-14
 박종택 111-03328-14
 차수자 111-03329-14
 정혜정 111-03330-14
 채명묵 111-03331-14
 설종환 111-03332-14
 설기환 111-03333-14
 김범태 111-03334-14
 김경순 111-03335-14
 유해권 111-03336-14
 이정인,이정주 111-03337-14
 조미영 111-03338-14
 안병걸 111-03339-14

아프가니스탄 회원

윤종호 511-01084-15
 임영광 511-01085-15
 장선희 511-01086-15
 혜명스님 511-01087-15
 김민영 511-01088-15

특별후원금

2003. 12. 16 - 2004. 01. 31까지 입금된 사항입니다.

이은순 1,000,000	Youth Forum Japan 508,956	정홍자 1,200,000	김형기 1,000,000	신 주 호 100,000
귀빈여행사 3,442,000	김희자 1,000,000	이현정 1,700,000	김남순 1,000,000	정 미 숙 100,000
김순호가족 3,500,000	이순옥외4명 1,000,000	무주상 1,000,000	조덕희 1,000,000	학익여고3-7 75,500
제일한국정년연합 2,188,940	임태경 2,050,000	지명숙 1,000,000	광야교회 630,000	강 상 희 300,000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3. 12. 17 - 2004. 2. 15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나경진 400,000	심란 30,000	김우주 50,000	김찬옥 50,000	김철수 20,000
김월금 300,000	박근숙 50,000	이종경 108,000	이병일 10,000	김홍미 20,000
이의진 500,000	윤원중 50,000	차영주 19,575	김태분 50,000	채성진 5,000
조영숙 100,000	김보미 250,000	무주상 129,150	차웅백 30,000	이향숙 100,000
김남식 200,000	남점자 400,000	무주상 1,640	배영애 50,000	무이스님 50,000
최유리 10,000	강명숙 10,000	송민철 100,000	손남희 20,000	김지은 15,000
김대웅 30,000	청주지장부 500,000	김지형 203,050	대구정토회 76,000	김기순 20,000
김해곤 100,000	박재신 100,000	대각정사 500,000	윤채희 30,000	김태갑 50,000
김종덕 50,000	정상만 50,000	최식 200,000	김상률 100,000	이종진 31,000
손동순 10,000	이숙기 50,000	양해진(캐나다) 16,474	묘덕왕 30,000	장인자 10,000
남현정 15,000	정남식 100,000	최창주 10,000	류점희 10,000	박순천 10,000
최용곤 10,000	이종준 100,000	차상옥 5,000	박기연 30,000	이순섭 30,000
남현승 15,000	이경숙 30,000	이상임 30,000	김신원 30,000	백혜진 30,000
이현숙 100,000	김동윤 50,000	보위덕 200,000	장진희 30,000	차금삼 50,000
김백식 10,000	송은호 100,000	안춘옥 21,000	김지영 30,000	김혜련 40,000
진성곤 100,000	현영실 30,000	배성현 10,000	황연숙 30,000	유애경(마산) 100,000
문가륜 150,000	박계선 30,000	김영수 20,000	양정아 30,000	청안사 1,000\$
이영희 150,000	김순옥 150,000	김명희 200,000	김미경 30,000	청안사신도님들 940\$
김순희 150,000	박명기 50,000	정분이 10,000	강철수 161,755	무주상(이한나) 200\$
김양은 150,000	정도합장부 180,000	김현자 100,000	푸른숲학교 208,540	이현주 300\$
홍숙량 150,000	최이섭 200,000	최현태 50,000	이상룡 100,000	마산정인사 500\$
부산전중 3-7 49,900	무주상 100,000	김옥자 20,000	사공창한 50,000	성명숙 1,000\$
252차계달음의장 200,000	박정익 33,680	이영희 50,000	정다운 10,000	김현숙 1,600루피
운문사 260,000	안부금 200,000	이태화 30,000	송형기 500,000	김중수 1,960루피
유호열 150,000	정회준 750,000	이순옥 20,000	안병기 100,000	제임스잭슨 600루피
지은아 150,000	박덕환 100,000	이소연 30,000	정채규 20,000	이은희(독일) 200유로화
박기범 100,000	박창진 180,000	박진희 5,000	광주법당승자 200,000	
유말순 50,000	조선경 100,000	신동헌 30,000	박찬업 300,000	
지미현 50,000	장창호 50,000	진미숙 30,000	김재춘 150,000	

살랑이는 바람에서 봄을 느낍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요즘은 반송되는 우편물이 있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사할 경우나 사정이 있어 그만 두실 경우
시간을 내어 꼭 연락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후원님들의 파스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Tel. 02-587-8995



물품후원

2003. 12. 11 - 2004. 2. 12까지 들어온 물품입니다.

물품후원

1. 양윤순 바세린100g×10, 상공봉대3호×9, 실마진 1% 크림 400g×5, 은진탈지면 150g×5
2.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담요100, 스프레드45
3. 닥터정 볼펜95
4. 이종하 젠틸400mg 5개×3박스, 시덴연고10g×7, 데마코트에스크림15g 10, 타코나골드10캡슐10박스, 베노투스캡슐10캡슐 10박스, 안티푸라민30g 2통
5. 이순희 비누4, 세이폼1
6. 정해선 남성반팔 런닝72, 사각팬티90 치약56, 칫솔56, 비누154, 수건157
7. 동학사 양초 6박스, 향박스, 이불4
8. 대구정도법당 노트300, 도화지252장 등 문구류 2 박스, 알로에크림5, 도보크림2, 안티프라민500g×5
9. 울산정도법당 연필102,100자루, 지우개2,000개 및 문구류 2박스, 바세린450g×1, 실마진400g×1
10. 창원불교청년회 알벤다졸2정×50×10박스
11. 성영진 양말6, 노트6, 연필7, 비누2, 칫솔1, 색연필1
12. 김은숙 양말25
13. 성공회대 반팔티34, 수건3
14. 무주상 아미푸렉스영양제 180×10박스
15. 최희선 실마진1%크림20g×4, 안티푸라민60g×1, 쉐레코트크림15g×5, 후루버말정2정×10, 무스콜 에프캡슐 12캡슐×10, 하이비날에스정 120정×2
16. 서수경 안티푸라민60g×3, 베타엠30g×2
17. 김애서 가방3, 컵셋트1, 수첩2, 탁상시계1, 찬통1
18. 김경희 고무푼선인형20, 고무푼선1문치
19. 경주 동국대부속유치원 노트350, 크레파스36색 100, 스케치북10×20, 의류10박스
20. 김한옥 이불담요베개셋트6, 베개4
21. 마산정도법당 잠바21, 재활용의류6문치, 신발40켤레와 실내화16켤레(동양고무,신발나라,꽃신), 노트 9000(마산문구사),
22. 마산시여약사회 가운 16장
23. 유한양행 래피콜10캡슐60×14, 래피콜10캡슐 390 박스(소), 래피콜(병)45, 콘택600 10캡슐×475, 젠틸45×5, 젠틸(병)1160×10+12, 큐자임 160×3×366, 안티푸라민에스르션 398, 스위터 372, 삐콤 1000×3
24. 일산노인종합복지관 티셔츠125, 남방72, 츄리닝바지 2
25. 청주정도법당 수건52, 세수비누 70, 남자바지 140, 겨울옷상의 22 등 9박스
26. 김민정 알벤다졸 1×2정×250통, 카미오크림15g×20, 실마진1%크림400g×5통, 삐콤1000정×6통
27. 황미숙 바세린100g×20통
28. 최은희 트라스트패취 7매×3+4, 제일찜질파스 6
29. 무주상 노트21, 수첩7
30. 제약협회의약품 15개사(근화제약,대우약품공업, 동아제약,바이엘코리아,삼성제약,삼아약품,삼천당제약,상아제약,유한양행,일양약품,제이알팜,중외제약,한국아스트라제네카,한독약품,현대약품) 20품목 지원
31. 금천선원 세수비누66, 노트17통 1박스
32. 이정자보살 의류 10문치, 어린이바지 360장
33. 광주문민정사 남런닝80, 남팬티70장 포함 등 속옷3박스
34. ㈜알피니스트 패딩조끼 200장
35. 광물사 런닝75장, 팬티84장
36. 이정선 필통168, 연필420, 재활용의류1박스
37. 고려은단 솔라씨 20정×100개입×3박스
38. 김종수 원단 2문치×43키로
39. 박명심 크레파스2, 문구셋트5, 연필,지우개2, 공책 15, 실내화1, 연필셋트 2, 필통1
40. 정재욱 비누16, 치약10, 칫솔10
41. 제천정도법당 수건23, 양말12, 치약22, 비누30 등 3박스
42. 권도법성 치약4, 비누4, 삼푸1
43. 김희수 롯데햄선물셋트15, 벽시계3
44. 김애경 롯데햄선물셋트5
45. 권혜숙 벽시계1
46. 서울법당 재활용의류 4박스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3. 12. 1 - 2004. 1. 31까지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광주

두암세탁소 2,450 빅마트두암점 17,380 엄창수 69,750 이한빈 29,430 일과놀이 83,890

▶ 대구

경일중학교 79,320 김동천 45,750 김숙자 18,100 김순녀 19,930 김양모 24,240 김양모 23,440 김영모 24,120 김유경 71,990 김의현 22,710 김재형, 김정아 26,370 김정숙 20,000 김정오 23,310 김정오 21,790 김정자 50,900 김종석 23,600 김지향 18,500 김춘선 32,550 김현성 38,250 덕정화 19,940 무봉 24,800 무주상 25,190 무주상 4,740 무주상 15,210 무주상 11,970 박미혜자 27,810 박숙희 17,760 박희연 23,000 손경희(수미광) 54,700 심화실 33,180 안병걸 47,420 안춘옥 39,500 양원석 24,600 어진경 14,900 이미경 30,220 이상봉 23,260 이숙희 21,750 이승숙 11,200 이승훈 22,920 이윤식 54,150 이준호 28,270 이창훈 11,400 이춘희 15,960 장미미용실 33,500 전병득 63,000 정정자 34,970 조순옥 34,600 조옥분 16,970 조용윤, 윤희 19,680 조흥연 49,550 채정기 47,570 청안사 29,010 청안사 32,410 청안사 17,200 청안사 19,470 최경순 51,670 최경순 68,970 최혜정 13,200 허순이 18,360 허진서 15,600

▶ 대전

갈매기해물탕 12,900 기와집 1,160 김대현 1,600 김미혜 28,640 김서영○ 22,100 김선례 10,490 김정환 20,690 김태풍 25,380 무명 4,580 무주상 3,290 무주상 6,950 무주상 2,140 무주상 5,200 무주상 3,390 무주상 2,500 무주상 3,940 무주상 33,950 무주상 3,370 무주상 6,040 무주상 7,270 무주상 2,100 무주상 14,270 무주상 18,050 무주상 3,870 무주상 10,200 무주상 3,020 무주상 5,770 무주상 1,980 문성임 4,110 박영민(자재왕) 26,810 박찬익 3,730 백제정형외과 7,440 서은철 22,100 서형철 26,560 설용진 1,340 신필우 8,090 설비식당 4,010 아구동네복서방 2,960 오석주 25,800 오화영 15,200 유리그릇도매 3,640 유인자 28,230 윤영희 18,650 이규희 2,070 이재경 2,570 이정미용실 15,840 이정선 20,760 이태성 25,790 장두진(우상) 11,840 장태훈 2,060 전경숙 26,860 전외자 20,850 정세원 14,600 정영원 12,520 중국성 15,130 중앙불교사 17,200 차준석 1,990 최리자 25,760 최리자 54,030 최민희 32,280 한겨레 5,780 황기숙 21,340

▶ 마산

강문선 18,770 김동한 29,990 김찬민 26,220 김형수 62,340 남순점 12,440 남점자 19,740 동국산업 26,060 무주상 21,400 무주상 22,100 무주상 8,400 무주상 43,660 무주상 37,170 무주상 11,100 서봉수 3,870 송중호 3,790 안상욱 25,310 안선민 26,700 안태선 59,700 양수용/배정아 31,810 유경자 19,880 유말순 23,820 유말순 20,710 유말순 17,570 윤도경 23,220 이병수 18,580 이지선 16,200 정덕연 11,010 조현수 4,670 조현정 6,070 진현우 15,620 최영균 23,570 하차근 17,470 홍수진 29,620 황선욱 31,240 황재수 30,680

▶ 부산

강가령 2,900 강가령 31,600 강두영 21,910 강양중학교 6,310 구포중학교 12,300 김금옥 16,040 김민수 23,220 김승자 12,370 김준우 35,540 김춘식 7,080 녹십초 24,900 무주상 9,890 무주상 8,660 무주상 1,160 무주상 22,350 무주상 46,730 무주상 20,800 무주상 12,180 무주상 26,470 무주상 3,980 무주상 18,790 민병훈 19,610 범문주 40,940 봉삼초등학교 19,220 봉삼초등학교 19,590 봉삼초등학교 20,110 봉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3년. 12. 1 - 2004. 1. 31까지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삼초등학교 22,560 부경민 17,470 손아람, 아라 47,330 오수복 23,380 이강경, 수민 18,320 이미근 9,150 이종철 37,690 장일선 46,100 정모란 13,340 정복례 55,240 정술비 15,860 주용근 18,110 최광수 38,580 추영자 19,330 하정희 18,220 허영조 34,700 허중구 13,820 홍주연 17,400 홍주연 16,110 홍지연 20,830 황주성 29,750 J.S.Y. 18,750

● 서울

강경옥 1,100 강명주 18,390 강애니 22,750 강애니 24,720 강연화 1,500 강용목 15,340 강진우 8,800 강필순 66,500 강현수 84,550 강현수 49,060 강희석 36,140 경련 1,000 고힌사 50,000 공덕이 20,060 박봉준 29,920 박봉준 26,140 국민은행 27,620 국민은행 서초남지점 110,380 권영미 4,710 권영미 23,680 권해원 27,600 권혜진 2,290 김경식 2,740 김경희 3,700 김국현 19,440 김금복 1,000 김다운 2,780 김도훈 3,590 김동연 14,940 김명화 4,470 김명희 4,500 김무로 39,400 김미일 17,330 김병녀 5,000 김병찬/김유성 22,070 김분이 2,010 김삼년 32,010 김선진 3,820 김성수 78,630 김성실 9,670 김소미 8,570 김수경 17,030 김숙자 23,900 김순옥 1,000 김순희 1,540 김애식 16,850 김애심 19,980 김애심 22,890 김애심 15,300 김양덕 46,610 김어금 3,700 김영남 1,700 김영범 22,270 김영범 23,970 김영숙 1,140 김영숙 74,950 김영옥 6,940 김영희 2,000 김영희 1,250 김옥실 2,000 김용민 2,590 김용민 2,180 김유리 3,210 김은숙 1,000 김은아 3,130 김은진 32,340 김은희 5,010 김재천 5,000 김정숙 50,000 김정심 3,050 김정은 14,350 김정은 7,000 김정은 21,130 김정은 24,370 김정은 27,520 김정한 11,680 김정호 30,320 김종수 1,100 김종숙 18,050 김지훈 16,210 김진삼 3,430 김진영 4,190 김진철 21,390 김진해 11,180 김창희 6,090 김춘부 19,650 김태경 21,950 김태명 4,000 김표체 1,560 김하은 3,520 김해 부영부식 36,130 김향숙 25,700 김현규 7,650 김현기 9,250 김형식 7,120 김형식 15,620 김혜련 20,000 김혜영 10,000 김혜영 10,000 김환기 24,790 김희오 23,430 김희오 19,670 나금선 5,300 남동우 21,820 노영옥 1,000 노희경 214,870 동경옥 2,000 류금호 3,500 류희원 12,260 무주상 2,560 무주상 1,100 무주상 900 무주상 890 무주상 1,090 무주상 1,000 무주상 18,100 무주상 1,210 무주상 32,600 무주상 28,000 무주상 1,000 무주상 17,440 무주상 1,350 무주상 36,790 무주상 16,600 무주상 820 무주상 360 무주상 370 무주상 1,780 무주상 2,460 무주상 20,930 무주상 27,560 무주상 1,510 무주상 500 무주상 5,550 무주상 1,600 무주상 3,900 무주상 1,350 무주상 3,860 무주상 940 무주상 1,000 무주상 1,000 무주상 1,300 무주상 23,410 무주상 2,200 무주상 4,920 무주상 1,110 무주상 600 무주상 8,760 무주상 2,240 무주상 2,120 무주상 1,760 무주상 3,570 무주상 1,000 무주상 1,610 무주상 1,150 무주상 4,470 무주상 1,300 무주상 2,400 무주상 1,300 무주상 3,400 무주상 12,880 무주상 2,110 무주상 41,180 무주상 19,890 무주상 24,140 무주상 340 무주상 77,540 무주상 5,690 무주상 28,840 무주상 2,000 무주상 1,260 무주상 3,100 무주상 1,000 무주상 1,000 무주상 1,000 무주상 810 무주상 3,900 무주상 1,500 무주상 2,600 무주상 2,900 무주상 10,000 무주상 2,410 무주상 1,100 무주상 1,080 무주상 1,500 무주상 5,000 무주상 29,700 무주상 33,780 무주상 103,380 문석규 1,070 문장식 10,980 문호길/박영복 2,600 박경화 18,770 박근녀 3,110 박근녀 1,000 박기찬 5,830 박동만 31,720 박동휘 64,330 박명기 8,160 박석환 18,730 박영숙 22,110 박영숙 29,600 박영숙 17,500 박영숙 21,410 박영숙 30,690 박영일 1,000 박영준 26,120 박옥남 10,060 박옥남 11,960 박은해 1,550 박장선 가족일동 4,400 박중호 1,530 박지혜 4,650 박진웅 4,310 박진우 15,900 박춘배 9,760 박칠성 41,750 박학익 5,000 박현옥 31,450 박현일 2,430 박혜자 23,500 박혜정 42,200 박혜정 38,650 박해진 30,000 박희경 23,380 반포복지관 325,660 배종옥 200,000 백수현 15,770 상곡김치부식 7,690 서치욱 56,400 설갑문 9,880 설경 3,100 설영민 1,800 성말규 60,220 손병기 33,270 손성근 5,330 손옥순 27,700 손용남 1,530 송경애 14,870 송영희 22,600 송의진 6,710 송인화 2,130 시장수퍼 24,850 신경옥 17,290 신동헌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3. 12. 1 - 2004. 1. 31까지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19,730 신상철 6,350 신영숙 1,500 신해옥 1,600 심유정 2,780 심정금 1,500 안유지 10,030 안종규 4,480 안호일 1,250 약천사 66,400 양인영 6,940 여대길 5,130 오용길 9,690 오태우 1,000 우연 30,450 우재석 4,000 우정 17,600 원조1번가 4,260 유성현 43,150 유승열 26,280 유혜경 10,500 윤계화 22,270 윤진수 800 윤표 19,350 이경영 17,280 이경희 15,350 이기철 2,000 이길순 외 1명 2,850 이덕기 27,690 이명순 1,480 이명월 1,070 이문걸 16,060 이범희 6,230 이보원 2,780 이상임 33,770 이수경 40,350 이승기 40,820 이영선 1,300 이영옥 3,300 이영희 3,510 이예지 19,900 이용선 17,680 이은숙 17,470 이정민 18,100 이정민 7,320 이정수 6,480 이정순 7,460 이정식 37,000 이정애 1,830 이정옥 6,600 이정욱/이정민/이혁재/김혜경 211,490 이준철 9,680 이지연 1,670 이지윤 3,800 이혁준/용준 22,300 이효순 25,830 이효순 2,430 이효순 21,440 이효순 26,320 이효순 7,180 인더룸 23,450 임대희 31,880 임부영 26,030 임상순 23,600 임성은 9,090 임연수 4,700 임정애 8,290 임주혁 3,570 임창범 14,550 임춘자 15,540 임희택 56,300 자연의집 25,940 장명희 8,250 장성호 30,050 장유림 11,160 장준봉 4,870 전영실 1,200 전형수, 상수 19,440 정명숙 14,210 정일용 28,860 정진아 168,000 정초란 2,100 정태오 1,000 정토희 청소년부 20,830 정행숙 1,000 정현미 13,260 정혜란 120,000 정흥식 35,890 조일완/조현지 3,070 조정숙 35,610 조찬일 9,080 천학길 1,000 최미대자 17,740 최미영 1,500 최민호 5,420 최승림/채은실 2,240 최영동 23,450 최옥란 1,000 최우순 2,000 최윤희 14,710 최이섭 17,480 최춘식 2,520 한명옥 2,050 한순화 5,000 한영숙 4,340 한영희 1,000 한우춘 17,980 한지은 5,000 허성필 20,000 홍이녀 2,380 황미숙/임태경 32,490 황미숙/임태경 30,700 황승원 7,790 황은경 16,340 황효경 26,100 확장영 15,000 J마트(모아모아) 12,970

▶ 제천

김복이 2,540 봉양농협연쇄점 20,730 유윤식 20,520 지미영 20,920

▶ 청주

금천동사무소 22,900 김재산 108,610 김정자 22,570 김형석 21,380 민경굴 19,650 민경근 25,390 박진옥 19,010 서명숙 32,250 신종석 11,130 연효석 45,580 오영주 171,500 유윤식(조카) 25,990 유정훈 4,090 윤운옥 38,450 음미경 24,520 이영희 17,150 이현숙 7,560 임진록 5,500 정상만 39,370 정상만 37,020 지명구 154,010 지원순 35,040 최순환 22,300 혜진거사 10,000

거리모금 현황

2003. 12. 1 - 2004. 1. 31까지의 모금액입니다.

광주 1,624,470 대구 8,286,490 대전 6,066,270 마산 2,901,870 서울 389,330
 정읍 200,200 청주 708,970



라진·삼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4년 2월 20일 현재

라지 · 섭봉 유치원 · 탁아소 결연현황

2004년 2월 20일 현재



* 회색으로 표시된 곳은 현재 지정기탁자가 없는 곳입니다. 위의 유치원 · 탁아소에 지정해서 후원해 주실 분은 연락주세요.

편 · 집 · 후 · 기

지난 호부터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소임을 맡게 되었다.

전에 청년회 활동을 했던 멤버들과 의기투합했으나, 이제 아기엄마가 된 그들은 예전의 그들이 아니다. 모임을 하는 날은 엄마를 독점하기 위한 아가들과의 경쟁시간.

소식지를 만들며 아기를 기르는 엄마의 사랑과 기쁨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있다.

더불어 요즘은 나도 엄마가 된 기분이다. 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쁘고, 감동스러운지... 하지만 읽는 분들 모두 그런 마음일 터이니 고슴도치 사랑은 아니겠지?

- 류희원 -

기대와 우려속에 시작한 제이티에스 소식지 자원봉사활동,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갈등이 생긴다.

엄마가 컴퓨터 앞에 매달려 있으니 우리 아이 요구사항도 늘고,

컴퓨터 자판을 마구 두드려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 일쑤다.

오늘따라 잘 자던 낮잠도 안자고, 틈만나면 쉬려고 하는 남편 모습도 눈에 거슬린다.

맞다. 일을 하면 항상 이런 마음들이 같이 따라 다녔다. 아이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새벽부터 매달려 저녁에야 일을 대충 끝내고 보니 집이 폭탄맞은 형국이다.

아이가 심심해서 온 집안 옷장이니 살림살이를 다 뒤집어 놓은 것이다.

엄마가 돌아주지 않으니 제 나름대로 방편을 찾은 게다.

한편으론 미안하고 한편으론 기특하다.

후다닥 치워놓고 피곤해하는 아이에게 발물을 시켜주고 재웠다.

잠든 우리 어진이 모습을 보니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

너무 예뻐서 뽀뽀 한번 쪽~

- 양운덕 -

지금까지는 제이티에스 후원자로서 받아서 읽기만 했었는데, 조금씩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한 27개월짜리 보리 덕분에 소식지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다. 그래도 아직은 엄마 치마끝에 매달리는 아이와 일하기란 참 스릴 있는 일이다. 인도에서의 이야기들, 선재기행을 다녀온 학생들의 소감들, 북한 소식들....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곳의 냄새와 그 사람의 향기와 그 상황의 열기가 묻어나서 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인다.

- 고정희 -